



2020년 7월 12일(제990호) 연중 제15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지금 여러분의 마음 밭은 어떤 밭입니까?”

한 여인이 어느 상점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하느님이 서 계셨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 여쭙었습니다. “어머, 하느님!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하느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팔려고 기다리고 있었던다.”

여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엇이든 다 판다니! 이런 행운이! 그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것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평화와 사랑, 행복을 사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어찌나! 나는 평화, 사랑, 행복과 같은 열매는 팔지 않고 씨앗만 팔고 있단다. 그러니 네가 이 씨앗을 사 가서 잘 가꾸면 평화, 사랑, 행복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단다.”

— 박용식 신부, 『예수님 닮아 가기』 발췌

씨앗 없이는 그 무엇도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는 삶 안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걸 너무도 잘 아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수많은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누군가와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싶다면 그 사람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누군가와 화해하고 싶다면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화해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꿈꾼다면 행복의 씨앗을, 이 땅의 모든 장병들이 하나 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싶다면 용기의 씨앗, 공감의 씨앗, 일치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다만 절대 서둘러 새싹을 보려 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심은 것과 동시에 새싹을, 줄기를, 꽃을 보려 하지 마십시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잊지 말고 물을 주십시오. 꾸준하게, 끈기 있게, 싹을 틔울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 밭을 가꾸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 백 배, 예순 배, 서른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삶의 씨앗들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주신 씨앗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씨앗을 움트게 하려면 가장 좋은 땅을 만나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땅에서 어떤 삶을 이루고 있는지 순간순간 돌아보며 가꾸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밭은 어떤 밭입니까? 길바닥입니까? 돌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우리 모두가 양지바른 좋은 땅에 그리스도의 씨앗을 심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김인식(세례지모회) 신부
해군교육사(교육사) 성당 주임

제 1 독 시 화답송 제 2 독 시 복음 환호송

이사 55,10-11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로마 8,18-23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복음 영성제송

마태 13,1-23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시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최인철 이냐시오



성인명: 최인철 이냐시오 (崔仁喆 Ignatius)

신분: 중인, 순교자

활동연도: ?-1801년

한양의 역관 집안에서 태어난 최인철(崔仁喆) 이냐시오는, 한국 천주교회 창설 초기에 형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워 열렬한 신자가 되었다. 1795년 포도청에서 순교한 최인길 마티아가 그의 형이다.

1791년의 신해박해 때, 최 이냐시오는 형과 함께 체포되어 형조로 끌려갔다. 그때 형조에는 이미 여러 동료들이 끌려와 있었다. 이후 최 이냐시오는 동료들과 함께 협박과 회유, 형벌을 번갈아 받아야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형 최인길과 몇몇 신자들은 이에 굴복하였지만, 최 이냐시오만은 끝까지 신앙을 증언하였다. 그러자 형조에서는 그에게 뉘우칠 기회를 주려고 3일 동안 집으로 돌려보냈다.

최 이냐시오가 집으로 돌아오자 늙은 어머니와 형제들은 눈물로 호소하면서 배교를 권하였다. 이에 그는 다시 형조로 들어가서는 ‘천주교를 믿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돌려 “비록 매를 맞아 죽는다고 하더라도, 천주교를 사악한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증언하였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임금의 회유를 받아들여 ‘천주교를 믿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에 석방되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최 이냐시오는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쳤다. 그리고 다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온 형과 함께 교회 일을 도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특히 형 최인길은 중국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영입하는데 힘썼으며, 신부의 거처를 마련하려고 새로 집을 사기도 하였다. 그렇게 주 야고보 신부의 피신을 돕다가 자신은 체포되어 순교하였다.

형이 순교한 뒤, 최 이냐시오는 교회 지도층의 일원이 되어 더욱 열심히 교회 일에 참여하였다. 그는 신주를 불살라 버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으며, 동료들과 함께 교리를 연구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데 열중하였다. 또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위협할 때마다, 그의 피신을 돕기도 하였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최 이냐시오는 외숙모의 집으로 피신해 있다가 체포되었다. 이어 그는 포도청과 형조에서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천주교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고 단언하였다. 오히려 그는 관리들 앞에서 천주교 교리를 설명해 가면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역설하기까지 하였다. 그러자 형조에서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최인철 이냐시오는 동료들과 함께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01년 7월 2일(음력 5월 22일)이었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그래도 잘해 왔다

가끔은 삐뚤거리며,	여기까지
가끔은 엉성하게,	잘해 왔다.
살긴 했지만	
그래도	잘했어, 애썼다.
	영길아.

상화이야기

신 비탈레 비실리카 성당



비잔틴 건축, 예술의 최고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성당은 화려한 모자이크와 대리석뿐 아니라, 건축적으로도 뛰어난 자랑한다. (외부 벽돌은 고대 로마 건물들의 유적에서 가져왔다.)

이탈리아 리벤나
6세기경 건축됨

일단 건물 내부에는 많은 모자이크화가 있는데, 지금 보는 작품은 황제를 상징하는 보라색 의복을 입고, 세계/우주를 상징하는 구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천사들을 그린 것으로,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7개의 봉인을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 성당이 헌정된 비탈레 순교성인에게 왕관을 건네 주고 계신다. 다른 한쪽에는 이 성당을 후원한 은행가 율리아누스 아르겐타리우스가 천사에게 이 성당 건물 모형을 봉헌하고 있다. 예수님의 발치에는 천상에 흐르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모자이크회 세부도

<다음 주에 계속>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5주일: 해상대 시장포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장회의

때·곳: 7월 14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사추를 따르라”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9)